

23 믿음에 의한 삶과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서 11장 1~2절, 6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찌니라 "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에 의한 삶이 필수인데 그 믿음에 의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약간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매우 중요하고, 믿음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분명히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진리 다시 말하면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합니다.

많은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 믿는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로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필요가 닥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필요를 채우기보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것이 되어 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을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째 우리의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책에 나오는 352쪽에 코이노니아의 본질 이 부분을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때문이에요. 이 책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코이노니아의 본질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이것을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 뭐냐 라고 말하면서 이 분은 4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필수적인 네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핵심입니다.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해야 한다.

그랬죠.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1200만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는 “존재를 다 걸고” 란 의미에 있어요. 무슨 말이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펴보는 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그 길에 동참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때 예를 들면, 이번에 이 목사님 차 사건만 하더라도 제가 임의로 계획해서 했더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현금한 분만 하더라도 그냥 현금한 게 아니고요 자기 개인으로는 중고차를 하나 갖기를 원했어요. 남편 되신 분이 아내에게 중고차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고차가 아니고 새 차를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새 차는 너무 부담되고요, 아니 새 차를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생기면 자기가 새 차를 타고 다니면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부담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자꾸 새 차를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창밖을 내다 보는데 차가 3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차를 주면 좋겠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는 차를 보면서 저 차 어떠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

데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아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차 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것을 목사님에게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했다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에게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두 분이 집에 가서 얘기하면서 놀랍게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 집에 가서 그 차의 차종을 알아 봤어요. 그게 SM5 였던 것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임의대로 계획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뜻을 보 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 위해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게 필수 중에 필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면 내 선호하는바 내 주장, 내가 추구하는 바, 내가 원하는 바, 내 육신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이러한 것들이 전혀 내려지지 않고 이러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죠.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소망이요 소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소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열망이요 나의 소망인 그 자리에 가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하니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 뜻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 소망이 되어질 때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예요.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사랑한 게 아니예요. 전혀. 전혀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죠.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0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하고 내가 원하는 바와 일치 되고, 내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되는 범위 내에서 우

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같이 가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순복함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취향과 우리의 선호하는 바와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면 그것은 전혀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려면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순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게 내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그게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일 것이예요. 그 말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요. 하나님은 떠다니는 교리의 집합체가 아니거든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관해서 우리가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경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재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넷째,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한다고요.

여기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우리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한.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이걸 통해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면 이걸 통해 채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이 보이는 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도해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내려지는게 포함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다루면서 앞에서 거짓신앙체계! 실체는 전혀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를 다루면서, 인본주의 특성이 하나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 또 하나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 세 번째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자기 목적 위해,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전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신앙체계입니다.

그럼 그 자기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수단과 자기 방법을 통해 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섬기는 게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전존재로 동참하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게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주를 위해 계획을 세워 섬긴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삶을 조정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목적을 보이셔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목적을 보이셔서 동참했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자기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그에게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조정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순간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알리시므로,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해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 따라 살아가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그럼 자기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때로는 예를 들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헌금하게 하되 인위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수단을 통해 교묘하게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저들에게 헌금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인위적인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라고 저에게 전혀 재단치 않은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것이 확인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는데, 전혀 하나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3만 몇 천원, 어떤 사람은 5만원 헌금했다고요.

3만 몇 천원, 5만원 가지고 어떻게 2천만원 넘는 차를 샀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예산을 전용한다던가, 선교회 예산을 전용하면 그건 제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지시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움직이리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그것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적 수단과 방법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전존재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사실요 현금한다고 하는 분이 지금 돈이 많아서 현금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환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그분이 어려우니까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채워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되게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가로 막으려 하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 게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절대로 방주를 지을 리가 없죠.

무엇 때문에 그 큰 배를 지었겠습니까? 아무 쓸모에도 없는 배. 자기 생각하기에!

차라리 그토록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죠.

회개하라고 부르짖어야죠.

무엇 때문에 배를 짓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쓸모가 없는데!

근데 자기 계획을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너무 타락하여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저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에 노아더러 동참하게 만드신, 초청하신 다음에 이 일을 위해 배를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배를 짓는 것 -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배가요 운동장 보다 더 큽니다.

그 당시 전기톱도 없었어요. 전기 대패도 없고. 제가 보기에 나무 하나 자르는데도 그 얼마나 걸렸을까요? 하나 자르는데.

노아가 기운이 좋았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뭐 얼마를 지나도 안 될 거고요. 그 연장 가지고.

그것을, 판자를 만들기 위해서 쪼개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렇다면 그 배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외경에 그랬다나, 백년이 넘게 걸렸겠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노아는 인생 헛 산겁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노아는 인생 헛 산겁니다.

자기 인생의 그 소중한 부분을, 그 많은 땀과 그 많은 노력과 삶을 전체 투자해서 배를 지었는데 비가 안 오면 그거 뭐에 씩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올, 그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존재로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설 때던지, 여리고성 앞에 설 때든지,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엄청난 대군 앞에 나갈 때던지, 아브라함이 본토 아버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하 실 땅을 갈 때던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지붕에 숨길 때던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전존재로 신뢰했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걸었습 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

오늘 날 성도들이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오늘 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전혀 안 계셔도 손해 안 볼만큼 신앙생활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 딱 걸치고, 하나님 만약 계시면 지옥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때로는 평안하기도 하고, 또 잠도 잘 오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좋은 일도 있고 하니까 얻을 게 많아.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세상 살아 가는데 유익한 점도 많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요.

그렇다고 자기 전존재를 하나님께 건다. 이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살면서 편할 대로 합니다. 이쪽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했 다가 저쪽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저렇게 했다가 합니다.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전체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 오.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전존재로 신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나? 여호수아가 요단 강 앞에 섰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하면 제사장들에게 법궤 를 들려서 그 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지요. 아니, 지금 강이 넘치는데 그리로 들어 가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빠지고 언약궤가 물속에 쳐박히고 몇몇 죽어보십시 오. 그러면 여호수아는 끝나는 거지요. 돌에 맞아 죽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갈 확률이 많고, 설령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 모든 게 끝나는 거지요. 더 이상 리더로서 활동할 수 없겠죠. 모든 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랍게도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다음에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줄을 주욱 세워서 법계를 앞세우고, 칠일 동안 돌래요. 칠 일째는 일곱 바퀴를 돌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아니 근데 그게 무너질 것 같으면 한 일주일 동안 돌았으면 이제는 흔들리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무너지는 기미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칠 일째 일곱 바퀴를 다 도는 시점까지 돌 하나 안 떨어졌어요. 만약에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다면 여태까지 경험한 그 기적이요. 별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와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여호수아는 리더로써 충분한 자격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백성들은 흩어지게 될 거고, 가나안땅 정복이요?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여리고성이 관문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역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알았기에 전 존재로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일을 이루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능히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없이는 믿음이라는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은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전혀 돈이 없는 가운데 중도금이 들어가려면 5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한주전인 주일날 오후까지도 겨우 2천만 원도 현금미 채 되지 않은, 교회의 다른 예산이 넘어온 것까지 합쳐도 4천만 원정도 까지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했기에 우리는 모여서 회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여서 어떻게 채워놓을까 회의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그 주간에 저는 다른 곳에 집회가 있어서 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모든 게 걸려있습니다. 계약은 취소될 것이고, 계약금은 그분이 돌려줘야 그나마 받을 것이고, 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고, 그것도 3억이나 넘는 돈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흩어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걸 이루셨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잔금까지 다 치러졌습니다. 이제 건축하려면 1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5억 정도는 용자로 하려고 합니다. 용자로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용자를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잔고능력이 되어지고 그걸 갚아갈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에 용자해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나머지만 하더라도 10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중도금 잔고를 치르면서 우리가 용자를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8억5천을 치르고 1억5천이 남아있어도 아직 8억5천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건가요? 모릅니다. 한 가지는 즐기차게 주님을 바라보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힘에 진하도록 현금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처음 이 건물일 사는 것부터 현금한 내용을 보니까요. 성도들의 현금으로 되어진 돈만 하더라도 대부분 포도나무교회성도들이 했고. 외부에서도 일부 했지만, 극히 작은 일부. 12억이라는 돈이 현금되어졌더라고요. 오늘오기까지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사이즈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건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무책임하게 우리는 선택하신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계획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 한 것처럼, 교회 지어놓으면 교회 부흥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장소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이동할 생각도, 꿈에도 꾸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말씀하셨고 그때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지금도 1, 2부로 나뉘어도 장소가 부족한 장소인데, 지금 교육관도 따로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장소가 부족해서 난린데, 교육관도 부족해서 난린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련히 자기 교회를 간섭하시니까 우리는 전혀 그 방면에서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자원과 능력으로 일을 이루실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려면 그때 우리가 진짜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진짜로 믿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일을 이루시되 아무리 여태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가기만 하면 그분이 그분의 능력과 자원으로 그 일을 이루실거라 그 말입니다. 여태까지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 다음순간에 안 되면 여태까지 이거 쓸모없습니니다. 별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의한 삶을 강조하고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막상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닥쳐서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수단을 의지하고, 방법을 의지해서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겁니다. 설교는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포도나무교회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행해오신 하나님의 일이 너무 너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더 클 것이고 크든 작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믿음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요.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포도나무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필요를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채우셨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실수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셨겠지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여러 번 들었는데 아직도 삶에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한솔마을 7단지 앞에 코너에 있는 단독주택 그 지하에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여기 3층은 이미 계약이 되어있었는데요 입주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어서 한 4개월 전에 거기 교회 하나 하다가 목사님 유학가신다고 그냥 비어주신다고해서 우리가 거기 임대해 들어갔습니니다. 있는 그대로. 그럼 나올 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자리 잡혔습니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짧은 기간이었는데, 4개월 동안에. 그래서 우리 이사 오게 되었는데 한 5개월 됐나요 5개월 동안에. 그런데 거기는 4,000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빼서 여기 잔금을 줘야 되잖아요. 더해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빼려면 교회 내놓는다고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 알리기는 그렇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알리는 데가 있거든요. 서로 알리는데가 있어서 그 신문

에 광고를 내달라고 전화하고 돈을 붙이면 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돈을 붙이러 은행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멈춰 서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 하면, 이거 지금 비어주려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걸 내놓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나와야 여기 잔금 주고 들어갈텐데 당연히 가서 알리기라도 해야 누가 오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감동을 무시하고 돈을 붙이고 전화했더니 광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광고를 보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교회 내놓으셨다면서요? 예. 제금 지금 보러 가는데요. 가서 뭐하면 계약할게요. 비오는 날인데.. 아 그럼 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끊자마자 전화가 바로 울렸어요. 바로 옆단지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그 교회가 없는데 그 옆단지에 3층과 2층에 교회가 두 개 있었어요. 같은 교단이. 3층은 사서 들어왔고 2층은 조그마하게 임대해서 들어왔는데 이 2층 목사님이 파송한 교회가 3층 목사님 친구예요. 그래서 같은 교단의 교회가 한 건물에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이걸 인수할테니까 그리고 돈을 충분히 줄테니까 가까운데로 옮겨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찾는 중에 이 교회 나가는 전도사님이, 우리가 거기서 주부 영어 성경 공부할 때 성경공부 하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전도사님인 줄 몰랐고 나오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사간다고 그러는데 기도 부탁했으니까 그 교회가 장소도 좋고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전화 해서 뭐라고 하나 하면 우리는 한꺼번에 돈을 다 줄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얘기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 보세요. 저의 알량한 자존심, 아까 30분이 아니에요. 바로 조금 전에 전화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전화왔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안하면 목사님께 연락드릴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100만원 걸어놓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지나고 바로 전화왔더라구요. 목사님! 우리 그 교회 들어가기 원하는데 죄송해요 그분이 계약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지금까지 700만원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돈도 한꺼번에 안 주고요. 교회도 안 되고 돈도 안 주고 어디로 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 교회 갔더라면 그 교회도 좋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걸 내놓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데 아니 알리기라도 해야 누가 올텐데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했다가 지금까지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목적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되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가려면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